

음악교육의 심리연구 동향 분석*

현 경 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음악교육 관련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중 심리 연구의 동향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음악교육 관련 심리 연구의 현주소를 알아봄으로써 심리에 관련된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음악교육 관련 학술지 5개의 논문 총 1,117개 중 심리에 관한 논문 138개가 연구 대상이다. 중요 연구결과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심리 관련 연구는 총 연구 대비 12.4%에 불과하다. 연구방법도 조사연구가 61.6%로 대부분이었으며 연구대상이나 분야도 학습결과와 상관있는 분야에 심각하게 치우쳐 있었다. 시간과 재원이 많이 들더라도, 학습에 집중되어 있는 연구에서 벗어나 실제 인간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성, 성격, 태도, 흥미, 자기 효능감, 적성, 창의성 등 심리에 연구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 주제어: 음악교육연구 동향, 음악교육심리, 음악 심리검사, 음악적성, 창의성, 인성

차 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문제	4. 연구의 제한점
II. 선행연구 고찰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2. 연구방법 및 절차
IV. 연구결과	
1. 학술지별 음악교육논문비중	2. 음악교육심리논문비중
3. 연구대상별 분류	4. 연구방법별 분류
5. 연구주제별 분류	6. 연구도구 사용 동향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이 논문은 2017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연구과제번호: 2017-1-11-125/1)

**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불행하다. '2016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꼴찌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이 5명 중 1명이 자살충동을 느낀 경험 이 있으며, 자살충동을 3회 이상 경험한 '자살충동 위험집단'이 전체 학생의 5%을 넘는다고 보고하고 있다(염유식, 김경미, 이승원, 2016, 11쪽, 17쪽).

우리의 청소년들이 공부만을 강조하는 기성세대와 학교 사이에서 갈 곳을 잃고 있다. 많은 비행 청소년들이 생겨나고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삶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이다. 청소년에 의한 '집단 성폭행,' '8 세 여아 유괴 살인' 등 잔인한 범죄가 많아져서 학교 밖은 물론 학교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인 학생들 자신은 물론 교사나 부모들까지도 피해를 받는 시대가 되었다. 여교사를 희롱하는 남학생이나 부모를 해코지하는 청소년의 이야기는 이제 사망에서 들려온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자 교육학계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생들에게 뭔가를 많이 일방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학문중심교육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인간중심교육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학생들의 정서나 인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행복한 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 때임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인재 양성'과 '학습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의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김경자 외, 2015, 27쪽).

음악은 정의적인 과목으로 인간의 행복을 도울 수 있는 과목이다. 음악은 우리의 학생들이 일명 주요 과목 중심의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이나 정서발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적인 성장, 사회적응, 정신건강, 창의성 등을 도와줄 수 있다.

음악수업이 인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것도 많은 연구가 증명해 주고 있다(조정은. 2016, 박성우와 정은경. 2015, 김보경과 김용희, 2014, 박형신. 2013, 윤관기. 2013, 남지영. 2012, 방은영. 2012, 장근주, 2011). 이 연구들은 음악활동이 사회성, 인성, 자기효능감, 정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음악 과목이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가 증명하고

있다(김현실, 2015, 박현아와 문혜련, 2015, 정운선, 2015, 우은정 외, 2014, 이혜진, 2012, 최일선과 박주영, 2012, 안경숙과 김소향, 2011). 이들은 다양한 음악활동, 즉 음악놀이, 음악 만들기, 음악극 활동 등이 창의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학교현장에서는 음악교육이 무시되고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음악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때이며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여야 할 때이다. 음악교육분야 중에서도 학생들의 인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아이들의 마음의 변화를 들여다보는 심리학의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심리학이란 보통 인간을 포함한 “유기체의 정신 과정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심웅철, 전우병, 양돈규, 2008, 12쪽)이라고 정의된다. 음악교육이 인간의 정신과 행동을 변화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음악교육 심리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최근의 음악교육의 심리학의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그 동안 이루어진 음악교육의 최근의 연구 동향을 보면 이제까지 음악교육의 연구는 주로 교수-학습개발, 이론적 고찰,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총 연구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교육심리에 대한 연구는 7%에 불과하다고 연구되었다(박기범, 2011, 72쪽). 어떻게 하면 음악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게 할까 하는 이론의 개선이나 학습효과 중심의 연구가 많았던 것이다. 또 박민경(2017)은 음악교육의 국내 학술지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총 연구 편수의 16.41%만이 교육심리와 사회학 영역의 연구였고 나머지는 교수학습방법이나 교육과정 등 학문과 교수-학습중심의 연구였다(45쪽). 살펴본 바와 같이 음악교육 연구 분야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수학습방법이나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이론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인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심리나 교육사회의 연구영역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기존의 큰 영역별로만 연구되어 있는 연구동향분석에서 더 나아가 음악관련 분야에서 학생들의 행복과 인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음악교육 사회학을 포함한 심리학의 연구 동향을 조사하는 일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연구동향 분석은 중요한 연구의 한 영역이다. 왜냐하면 연구의 동향은 음악교육연구의 현주소를 알려주어 음악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들의 행복에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 심리를 중심으로 한 동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인간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교육 연구의 현주소를 밝힘으로써 심리학의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목적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음악교육 관련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중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인간의 행복과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 연구의 동향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음악교육 관련 심리 연구의 현주소를 알아봄으로써 음악 교육에서 심리에 관련된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3. 연구문제

위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지별, 연도별 음악교육 논문은 얼마나 되는가?

둘째, 음악교육의 논문 중 음악심리와 관련된 논문의 비중은 어떠한가?

셋째, 음악심리와 관련된 연구의 연구대상은 어떠한가?

넷째, 음악심리와 관련된 연구의 연구방법은 어떠한가?

다섯째, 음악심리와 관련된 연구의 주제는 어떠한가?

여섯째, 음악심리와 관련된 연구들은 어떤 연구도구를 사용하고 있는가?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7년간의 연구만을 분석하였으므로 비교적 단기간의 연구동향 연구이다.

둘째, 두 개 이상의 연구방법을 병행했다든지 두 개 이상의 심리영역이 쓰인 논문은 본문을 참조하여 대표적인 한 가지에만 포함시켰으므로 그 결과가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다.

Ⅱ. 선행연구 고찰

음악교육연구의 동향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음악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한 연구는 없었다. 학술지에 나타난 음악교육연구동향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곽현규와 곽민석(2017), 장승희와 김영연(2017), 윤문정(2016), 정재은과 석문주(2014), 신혜경(2013), 최진호(2011), 박기범(2011), 등이 대표적이다<표 1>.

<표 1> 선행연구 목록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연도
곽현규 곽민석	‘음악교육연구’를 통한 국내 음악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 저자 선정 주제어를 중심으로	음악교육연구	2017
장승희 김영연	‘음악교육연구’ 학회지에 보고된 유아음악교육 연구 동향 분석	음악교육연구	2017
윤문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음악교육 연구 동향 분석	음악교육공학	2016
정재은 석문주	‘음악교육연구’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교육연구의 동향	음악교육연구	2014
신혜경	미국 음악교육에서 질적연구의 동향분석	음악교육연구	2013
최진호	연구방법론을 통해 본 음악교육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음악교육공학	2011
박기범	한국 음악교육 연구의 분석 및 개관:1980년 이후 국내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2011

정재은과 석문주는 ‘음악교육연구’의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게재된 총 243편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영역에 초점을 두어 연구동향을 분석하였고 박기범은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음악교육의 전체적인 연구 동향을 조사하였다. 장승희와 김영연은 1988-2016년까지의 ‘음악교육연구’에 발표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동향을 연구하였으며, 곽현규와 곽민석은 저자 선정 주제어를 중심으로 2003-2016년까지의 연구동향을 조사하였다. 윤문정은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동향을 발표하였으며, 신혜경은 미국의 질적 연구동향을 조사하였으며 최진호는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조사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음악교육의 전체적인 동향은 물론 연구방법론, 질적연구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윤문정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면 인간의 행복과 직결이 되는 음악교육의 심리에 관한 연구의 동향에 관한 연

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음악교육과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박기범(2011, 72쪽)이 밝힌 음악교육에서 90%이상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학습개발, 이론적 고찰,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제외한 인간의 정신과정과 행동에 대한 심리학의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이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교육이 중심이 되고 ‘음악,’ ‘국악,’ ‘예술’을 다루는 학회의 학술지 중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술지를 조사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학회는 5개가 있었다. 이 5개의 학회의 학술지 논문 중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의 논문을 전수 조사하였다. 다음<표 2>는 이 연구에 쓰인 음악교육 관련 학술지와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 연도이다.

<표 2> 연구대상 학술지

학술지	학회명	등재연도	ISSN
음악교육연구	한국음악교육학회	2006	1229-4179
음악교육공학	한국음악교육공학회	2011	1598-8252
예술교육연구	한국예술교육학회	2015	1738-8309
국악교육	한국국악교육학회	2015	1976-3522
국악교육연구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2016	1225-0651

학술지 다섯 개의 학술지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발표된 논문 수는 1,117개이었으며 그 중 72.2%인 807편이 음악교육 관련 논문이었다. 7년간의 논문 중 음악교육 논문 807편 논문을 전수 조사하였다. 제목은 물론 초록과 또 내용 파악이 필요한 경우 논문 본문도 조사하였다. 807편의 논문 중 이론적 고찰, 교수-학습 방법 개발,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교과서등 교육자료 분석 등의 연구를 제외하였다. 또 조사의 연구에서는 어떤 주제에 관한 인식이나 태도, 선호도,

보람, 자부심 등 심리요소가 많이 포함하고 있는 연구만을 뽑아 음악교육심리 영역에 포함시켰다. 단순한 의견을 묻거나 실태조사를 하는 논문은 모두 제외하였다. 그 결과 교육심리와 관련된 논문이 138편이었다. 이 138편의 논문이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이다. 다음 <표 3>은 학술지별 연구대상 논문 수이다.

<표 3> 학술지별 연구대상

학술지	음악교육심리 관련 논문수	비중
음악교육연구	79	57.3%
음악교육공학	31	22.5%
예술교육연구	22	15.9%
국악교육	3	2.2%
국악교육연구	3	2.2%
총	138	100%

2. 연구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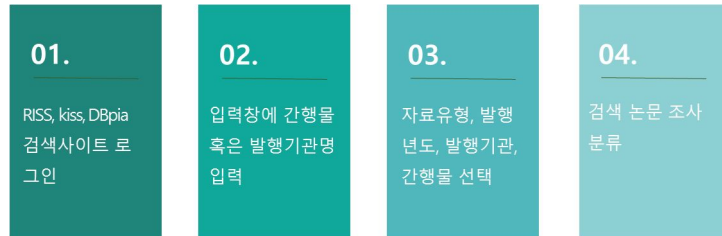
본 연구를 위한 논문검색을 위해 국내 최대 학술DB 사이트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 한국학술정보, DBpia를 이용하였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이하 RISS¹⁾)는 대한민국 교육부 출연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화시스템이고 한국학술정보(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이하 kiss²⁾)는 한국연구재단이 서비스하는 검색 제공 사이트이다. 그리고 DBpia³⁾는 지식콘텐츠 전문기업인 누리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5개의 학술지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실린 논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하였다. 자세한 조사과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 ① RISS, kiss, DBpia에 로그인 한다.
- ② 검색창에 학회명 혹은 학술지명을 입력한다.
- ③ 자료유형, 발행연도, 발행기관, 간행물 선택한다.
- ④ 검색된 논문 조사 분류한다.

1) <http://www.riss.kr/index.do>

2) <http://kiss.kstudy.com>

3) <http://www.dbpia.co.kr>



[그림 1] 학술논문 검색 과정

검색된 논문은 다시 다음의 절차로 분류, 분석되었다.

- ① 검색된 모든 논문은 엑셀에 논문 제목, 게재 학술지명, 게재 연도, 저자 등이 조사되어 리스트가 만들어졌다.
- ② 만들어진 리스트를 기초로 논문의 제목을 보고 음악교육 심리의 범위에 들어가는 연구를 판단하여 따로 분류하였다.
- ③ 논문의 제목만으로 어떤 논문인지 알 수 없을 때는 논문초록을 검색, 참고하였다.
- ④ 논문초록으로도 알 수 없을 때는 논문 본문 전문을 찾아 읽고 음악교육심리 관련 연구를 판단하여 분류하였다.
- ⑤ 분석을 위해 관련 모든 논문이 본문을 검색하여 구체적인 연구대상, 연구도구, 연구방법 등이 조사되었다.
- ⑥ 연구대상은 영·유아, 초등, 중등, 대학생, 교사(예비교사, 유아, 초등, 중등), 성인, 기타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 ⑦ 연구방법은 실험적 연구, 조사 연구, 질적 연구 기타 등으로 분류되어 조사하였다.
- ⑧ 논문을 인성, 효능감, 적성, 창의성, 인식 등의 주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창의성은 심리에 하나로 인식하여 포함하였다. 창의성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또 인식영역에는 어떤 주제에 관한 인식이나 태도, 선호도, 보람, 자부심 등 심리요소가 많이 포함하고 있는 연구만을 뽑아 음악교육심리 영역에 포함시켰다. 단순한 의견을 묻거나 실태조사를 하는 논문은 모두 제외하였다.
- ⑨ 분류된 논문의 모든 연구도구가 조사되었다. 연구도구는 지능검사, 음악적 성검사, 창의성검사, 인성검사, 인식조사로 분류되어 조사되었다.
- ⑩ 조사된 연구 도구는 모두 조사되어 엑셀에 리스트화 시켜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학술지별 음악교육 논문

연구대상 학술지가 모두 교육관련 학술지였으나 실린 논문이 모두 교육관련 논문은 아니었다. 1,117개의 논문중 807개만이 음악교육 논문이었다. 한국음악교육학회의 학술지는 100%가 음악교육 관련 논문이어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한국국악교육학회는 37.4%만이 교육관련 논문으로 비중이 적고 교육이외의 음악분석 등 순수 음악관련 논문의 비중이 많았다. 예술교육학회는 예외적으로 학회의 특성상 음악교육 논문뿐만 아니라 미술, 무용, 체육, 영화 등 음악 외에 다양한 교육관련 논문들을 다루기 때문에 음악 교육관련 논문의 비중이 높지 않았다. 학회별 음악교육 관련 논문 수는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 학술지별 교육관련 논문 수

학술지	논문 총 개수	교육관련논문수	비중
음악교육연구	251	251	100%
음악교육공학	233	195	83.7%
예술교육연구	223	128	57.4% ⁴⁾
국악교육	155	58	37.4%
국악교육연구	255	175	68.6%
총	1,117	807	72.2%

연도별 음악교육 관련 논문의 수를 비교해 보면 2010년부터 그 수가 늘어나다가 2014년에 141개로 가장 많았고 그 뒤에는 조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전체 음악교육 관련 논문 수는 한국음악교육학회의 학술지가 31.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한국음악교육공학회,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의 순이었다<표 5>.

4) 이 학술지에서는 다른 분야의 교육관련 논문을 제외한 음악 교육관련 논문만을 조사한 수이다.

<표 5> 연도별 음악교육 관련 논문수

학술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비중
음악교육연구	19	34	38	42	40	44	34	251	31.1%
음악교육공학	25	23	21	19	40	36	31	195	24.2%
예술교육연구	16	12	20	14	22	21	23	128	15.9%
국악교육	6	10	10	7	13	7	5	58	7.2%
국악교육연구	26	24	27	27	26	22	23	175	21.7%
총	92	103	116	109	141	130	116	807	100%

2. 학술지별 음악교육심리 논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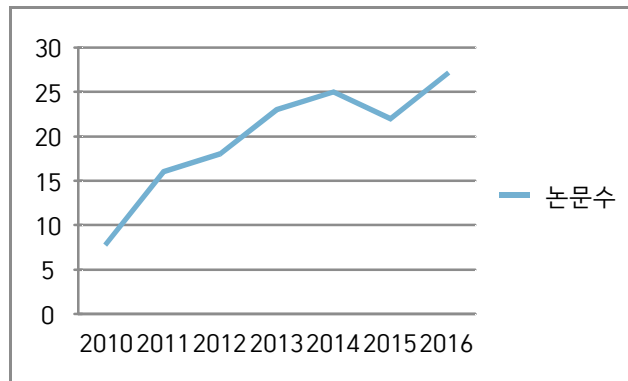
학회별로 음악교육심리 관련 논문수의 비율을 보면 한국음악교육학회의 논문이 31.4%(79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국악교육학회와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의 학술지에는 7년 동안 단 3편씩으로 1.7%뿐이었다. 대체적으로 국악교육관련 학술지에는 관련 연구가 적었다<표 6>. 년도 별로 음악교육심리 관련논문수를 살펴보면 2015년에 약간 줄어든 적은 있으나 2010년부터 꾸준히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 7>, (그림 2)).

<표 6> 학술지별 음악교육심리 관련 논문의 비율

학술지	음악교육관련논문수	음악교육심리 관련 논문수	비중
음악교육연구	251	79	31.4%
음악교육공학	195	31	15.8%
예술교육연구	128	22	17.1%
국악교육	58	3	5.1%
국악교육연구	175	3	1.7%
총	807	138	17.1%

<표 7> 연도별 음악교육심리 관련 논문 수

학술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백분율
음악교육연구	3	13	12	12	15	11	13	79	57.2%
음악교육공학	3	2	1	5	7	6	7	31	22.5%
예술교육연구	2	1	3	4	2	4	6	22	15.9%
국악교육	0	0	0	1	1	0	1	3	2.2%
국악교육연구	0	0	1	1	0	1	0	3	2.2%
총	8	16	17	23	25	22	27	138	100%



[그림 3] 음악교육 심리 관련 논문수 추이

3. 연구대상별 분류

연구대상은 영·유아를 포함한 학생, 교사, 일반 성인, 그리고 2개 이상의 연구대상 군을 가진 논문을 ‘혼합’으로 분류하였다. 학생은 급별로 구분하였으며 교사는 예비교사, 영·유아교사, 초, 중등교사로 나누었다. 교사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 교사 등 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도 모두 교사도 포함하였다. 그리고 예비교사는 유아와 초·중고 예비교사들을 모두 포함하였다. 성인은 다시 음악전문가, 일반성인, 학부모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음악교육 심리 관련 연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43.5%로 가장 많았고, 학생 중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총 학생 대상의 33.3%로 가장 많았

다. 그 다음으로는 교사대상 연구가 31.2%로 많았는데 교사 대상 연구 중에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가장 많았다. 연구 대상 군이 2개 이상 되는 연구는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이 혼합된 경우가 반 이상이었다. 자세한 것은 <표 8>에 나타내었다.

<표 8> 연구대상별 분류

연구대상		수	백분율
영·유아, 학생	영·유아	20	14.5%
	초등	16	11.6%
	중등	12	8.7%
	대학	12	8.7%
	소계	60	43.5%
교사	예비교사	16	11.6%
	영유아	10	7.2%
	초등	12	8.7%
	중등	5	3.6%
	소계	43	31.2%
성인	음악전문가	1	0.7%
	일반성인	2	1.4%
	학부모	2	1.4%
	소계	5	3.6%
혼합	초등생/중등생	17	12.3%
	학생/교사	5	3.6%
	그 외	8	5.8%
	소계	29	21.0%
총계		138	100%

4. 연구방법별 분류

대상 연구들의 연구 방법을 조사하여 조사연구, 실험적 연구, 질적 연구, 기타로 분류하였다. 한 논문에 여러 가지의 연구방법을 쓴 논문도 있었는데 논문 본문을 읽고 주된 연구방법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여 한 가지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주제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를 조사하고 심층적으로 더 깊은 조사를 위해 면담 등을 실시하여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을 경우 조사연구에 포함하였다. 왜냐하면 조사연구가 주이고, 좀 더 질 높은 조사를 위해 면담을 넣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조사연구는 통상 서술적 연구라고도 하는데 통제되지 않은 자연 상황에서의 ‘현재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⁵⁾’를 이 영역에 포함하였다. 반면에 실험적 연구는 통제적 상황을 만들어 실험반, 비교반을 비교하였다거나 실험 전, 후를 비교한 연구는 실험적 연구에 포함하였다.

연구방법을 조사한 결과 조사연구가 전체 연구의 61.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실험적 연구로 22.5%이었다. 연구방법의 분석기준과 자세한 연구방법의 분석 결과는 <표 9>에 나타내었다.

<표 9> 연구방법별 분류

연구방법	갯수	백분율	분석 기준
조사연구	85	61.6%	현재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통제되지 않은 자연적 상황에서의 연구 설문지 조사 상관관계 연구
실험적연구	31	22.5%	현상들 간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처치를 연구대상에게 가하고 그 처치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 연구 ⁶⁾
질적연구	17	12.3%	사례연구, 현상서술, 관찰, 면담
기타	5	3.6%	검사도구 개발연구
합 계	138	100%	

5) 성태제 (2016a). 교육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199쪽

6) 위의 책. 219쪽

5. 연구의 주제별 분류

음악교육 심리 관련 논문들을 인성, 효능감, 적성, 창의성, 인식 등 주제별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비록 이름이나 표현은 달라도 같은 내용의 주제라고 판단 될 때는 같은 주제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음악적성은 음악적 능력, 음악적 표현력, 음악적 발달, 음악학습능력 등 약간의 용어차이가 있으나 같은 주제로 분류하였다. 창의성 같은 주제도 창의성 외에도 융통성, 독창성 등은 같은 주제에 분류하였다.

인성은 성격/정서/태도, 흥미, 사회성, 연주 스트레스 등으로 나누어졌다. 효능감도 인성에 분류할 수 있겠으나, 인성에 분류가 가능한 자기효능감이나 자아효능감보다는 음악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수효능감이나 학습 성취효능감이 많아 따로 분류하였다. 적성은 일반 적성인 지능과 음악적성으로 다시 나누어졌다. 인식영역에는 어떤 주제에 관해 단순히 실태조사를 하는 논문은 모두 제외하였고, 그 안에 음악교육심리에 관련된 선호도나 태도, 보람, 자부심에 대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연구들만을 포함하였다.

어떤 주제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가 총 연구의 42.8%로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교사 인식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효능감에는 일반적인 자기효능감과 교수 효능감, 그리고 진로, 성취목표, 믿음, 학습동기 등이 음악과 관련된 음악 효능감에 관련된 연구가 있었다. 인성에 관한 연구는 22.5%로 이 연구 중에서 가장 많았던 분야는 흥미에 관한 주제이었다. 자세한 연구의 주제는 <표 10>에 나타내었다.

<표 10> 연구의 주제 분류

영역	논문수	백분율	분석기준
인성	종합인성	6	종합인성
	성격/정서	8	성격, 정서, 정서지능, 연주 스트레스
	흥미	7	흥미도, 음악흥미, 음악선호, 수업흥미,
	사회성	10	사회적 기술, 적응, 참여도, 자기표현, 갈등, 사회적 행동, 사회적응
효능감	자기효능감	3	자기효능감, 자신감,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기조절,
	교수효능감	11	교수효능감, 교사효능감,
	음악효능감	12	진로효능감, 성취목표지향성, 능력믿음, 음악효능감, 음악학습동기,

영역		논문수	백분율	분석기준
적성	지능	2	8.7%	일반지능, 공간능력
	음악적성	10		음악적 능력, 음악적 발달, 음악적 표현력, 음악학습능력, 음악성, 음악적 태도, 음악적 유창성,
창의성		10	7.2%	창의성, 융통성, 독창성, 창의적, 창작
인식	국악	6	42.8%	국악에 대한 인식, 국악교육과정,
	다문화	5		다문화에 대한 인식, 교사의 태도,
	방과후학교	9		음악단체활동, 사회문화예술, 문제점, 개선방안
	교사교육	7		교사교육과정, 과목, 능력
	우리나라 교육과정	3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교사인식	15		가창지도, 개별화교육, 교사교육, 통합교육, 영재정의
	학생인식	4		영재, 진로, 클래식 음악,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7		교육만족도, 수업만족도, 교육과정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전공만족도
	기타	3		교육과정(대학), 통합교육 등
합계		138	100%	

6. 연구도구 사용 동향

분류된 논문에 사용된 연구도구를 조사하였다. 138개의 논문에 쓰인 연구도구의 개수는 203개이었다. 한 논문에서 2-3개의 연구도구를 사용한 연구도 많았다. 다음은 사용된 연구도구의 개수이다<표 11>. 138개의 논문 중 61.6%인 85개의 연구가 한 개의 연구도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29%인 40개의 논문이 연구도구를 2개, 그리고 9.4%인 13개의 논문이 3개의 연구도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표 11> 논문에 쓰인 검사도구 수

검사도구수	논문수	백분율	쓰인 검사수(논문수*검사도구수)
1	85	61.6%	84
2	40	29.0%	80
3	13	9.4%	39
합계	138	100%	203

203개의 연구도구들은 다시 검사, 설문지, 면담, 관찰 등으로 나누어 분류되었다. 검사에는 여러 가지 표준화 검사, 표준화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검사가 다른 연구에 여러 번 쓰인 검사, 연구자 개발 검사 등이 있었다. 설문지나 면담지도 검사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연구도구 중 표준화된 연구도구를 쓴 것은 모두 72번이었으며, 선행연구의 연구도구를 수정하여 쓴 경우는 71회였고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쓴 경우는 57회였다<표 12>. 검사형태의 연구도구는 표준화검사를 가장 많이 쓰고 있었으며, 설문지형태의 연구도구는 선행연구를 수정해서 쓴 것이 가장 많았다. 면담지나 관찰지는 연구자가 개발하여서 쓰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12> 연구도구의 형태

도구 종류	도구형태	개수	백분율
검사	표준화검사	60	29.6%
	선행연구	27	13.3%
	연구자개발	4	2.0%
설문지	표준화검사	11	5.4%
	선행연구	39	19.2%
	연구자개발	35	17.2%
면담지	표준화검사	1	0.4%
	선행연구	3	1.5%
	연구자개발	14	6.9%
관찰지	선행연구	2	1.0%
	연구자개발	4	2.0
그 외 도구(분석, 평가, 개발)		3	1.5%
합계		203	100%

7. 논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논의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심리 관련 연구를 보면 그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나, 학술지의 총 논문 수에 대비하면 아직도 너무 적은 12.4%에 불과하다. 12.4%도 그 영역을 넓게 잡아 계산한 결과이다.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음악

교육 심리 연구는 더욱 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심리 관련 연구 중에서 실험연구는 22.9%뿐이었다. 61.6%가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파악하는 조사연구였다. 주로 간단한 것을 묻는 질문지를 이용한 연구였다. 심리를 효과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심리를 심층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긴 기간의 관찰연구나 실험연구 그리고 최소한의 심층적인 면담으로 실시된 연구가 필요한건 기본이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된 연구를 보면 심리연구라 부르기 무색한 가벼운 조사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셋째, 음악교육심리 관련 연구에 연구대상은 영·유아를 포함한 학생들이 43.5%로 제일 많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학부모 등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3.6%로 미미했다. 연구대상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넷째, 심리연구의 주제를 좀 더 자세히 분류해 본 결과 설문지를 이용하여 국악, 다문화, 방과 후 학교, 교육과정, 영재, 진로,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심리 연구의 영역 관련이 적은 인식에 관한 연구가 40%가 넘었다. 이 통계는 심리에 관한 문항이 한 문항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모두 넣어서 분석한 결과이므로 실제 심리 영역만을 위한 조사 연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인성이나 효능감, 창의성, 적성에 대한 연구들도 대부분 수업 참여도, 적응, 수업흥미, 교수 효능감, 학습 효능감 등 궁극적으로 학습 성취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학습에 중점을 둔 연구가 아닌 심리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섯째, 심리 연구들에 쓰인 연구도구들을 살펴보면 표준화 검사를 쓴 연구가 30%미만이었다. 대부분 선행연구의 도구를 수정하여 쓴 연구와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여 쓴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인간의 심리는 복잡한 것이다. 그러므로 단기간에 개발하여 쓴 연구도구는 그 타당성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긴 기간을 두고 여러 번 실험하여 개발된 연구도구를 사용하는 연구라야 신빙성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청소년들의 행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때, 이 연구는 음악과 인간 심리를 연구하는 연구의 동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음악교육 관련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중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인간의 행복과 정신건강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 연구의 동향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음악교육 관련 심리 연구의 현주소를 알아봄으로써 음악 교육에서 심리에 관련된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조사결과,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우리나라의 심리연구는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그 비중은 12.4%로 미미하다. 심리적인 요소가 조금 들어가 있더라도 심리연구에 포함하여 계산하였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만약에 이것을 좁게 잡아 계산한다면 그 수치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인성이 화두가 되는 이때에 심리에 관한 연구는 더욱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 방법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연구자가 단기간에 만든 질문지를 이용한 연구가 많았다. 인간 심리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하려면 단기간의 관찰이나 질문지를 이용한 연구로는 부족하기 쉽다. 장기간의 관찰연구나 실험연구가 많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시간과 재원이 많이 들더라도 실제 인간심리에 도움이 되는 연구의 활성화가 시급해 보인다.

셋째, 우리나라 최근에 시행된 심리 연구는 심리연구라 하더라도 학습심리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학습만을 강조해 온 우리나라 실정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습 성취 이외에 음악이 학생들의 심리에 영향을 끼치는 인성이나 자아 효능감과 그 효과 등을 연구하는 연구가 많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넷째,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70%이상이 연구자가 만든 검사를 이용한 연구이었다. 심리는 측정이 어렵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기간에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연구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수준 높은 표준화된 심리검사들이 개발되어야 함은 물론 그 도구들의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심리 관련 연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실제 인간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성, 성격, 태도, 흥미, 자기 효능감, 적성, 창의성 등 심리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곽현규, 곽민석 (2017). ‘음악교육연구’를 통한 국내 음악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 저자 선정 주제어를 중심으로, **음악교육연구**. 1-21.
-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 서울: 교육부.
- 김미숙 (2001). JRME (1991년-2000년) 논문 경향에 대한 소고, **음악교육연구**. 20. 1-19.
- 김병성 (1996). **교육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 김보경, 김용희 (2014). 음악놀이 프로그램이 ADHD 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 초등학교 5학년을 중심으로 -, **음악교육연구**. 43(4). 77-94.
- 김용희, 박지현 (2012). 초등음악 창작교육 연구동향 분석, **연세음악연구**. 49-72.
- 김현실 (2015). 예술교과통합 음악창작 프로그램이 음악적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음악교육연구**. 44(1). 51-75
- 남지영 (2012).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초등학생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음악교육연구**. 41(3). 109-134.
- 노석준 외 (2008). **교육연구방법 및 통계**, 서울: 동문사.
- 민경훈 외 (2017).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 박기범 (2011). 한국 음악교육 연구의 분석 및 개관: 1980년 이후 국내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9(2). 57-76.
- 박성우, 정은경 (2015). 사물놀이 활동이 초등학생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예술교육연구**. 13(2). 45-58.
- 박현아, 문혜련 (2015). 숲 체험을 통한 음악활동이 유아의 음악적 유창성, 독창성, 상상력에 미치는 영향, **음악교육연구**. 44(4). 97-115.
- 박형신 (2013). 국악감상을 토대로 한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창의·인성과 국악능력에 미치는 영향, **국악교육연구**. 7(2). 29-51.
- 방은영 (2012). 음악 감상활동을 통한 다문화 교육이 유아의 정서지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음악교육연구**. 41(3). 181-204.
- 변창진, 최진승, 문수백, 김진규, 권대훈 (1997). **교육평가**, 서울: 학지사.
- 석문주 (2004). 음악교육의 최근 연구동향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교육연구의 새로운 접근, **음악교육연구**. 27. 91-128
- 성태제 (2016a). **교육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성태제 (2016b). **현대교육평가**, 서울: 학지사.
- 신혜경 (2013). 미국 음악교육에서 질적연구의 동향 분석, **음악교육연구**. 42(2). 91~117.
- 심응철, 전우병, 양돈규 (2008). **심리학과 생활**, 서울: 서현사.
- 안경숙, 김소향 (2011). 그림책과 요리 활동을 활용한 창의적 음악 만들기 활동이 유아의 음악성과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음악교육연구**. 40(3). 85-107.
- 염유식, 김경미, 이승원 (2016). **2016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 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우은정, 구정모, 정은경 (2014). 상급학생 또래교수를 이용한 놀이중심의 전래동요 지도가 창의적 신체표현력 및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예술교육연구**. 12(4). 103-121.
- 원영실 (2006). 한국 음악교육학계의 최근 연구동향 분석, **국악과교육**. 24. 7-29.
- 윤관기 (2013). 움직임에 기초한 방과 후 학교 음악프로그램이 음악과목 학습부진 아동의 음악성취도, 사회성발달,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음악교육연구**. 42(3). 183-212.
- 윤문정 (2016). 자기효능감에 관한 음악교육 연구 동향 분석, **음악교육공학**. 26. 39-54.
- 이에스더 (2015). ADHD 아동 대상 음악치료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예술교육연구**. 13(1). 151-168.
- 이혜진 (2012). 프로젝트 학습을 적용한 음악 창작 활동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음악적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 이혜진(학현초등학교), **예술교육연구**. 10(1). 93-109.
- 장근주 (2011). 음악 특기, 적성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음악 학습동기와의 관계, **음악교육연구**. 40(2). 53-82.
- 정윤선 (2015). 오르프 교수법에 기반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음악적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음악교육연구**. 44(1). 185-217.
- 정재은, 석문주 (2014). 음악교육연구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교육연구의 동향, **음악교육연구**. 43(1). 165~188.
- 조정은 (201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시설청소년의 자기표현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음악교육공학**. 29. 201-219.
- 최일선, 박주영 (2012). 창작음악극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음악교육연구**. 41(2). 369-390.

- 최진호 (2011). 연구방법론을 통해 본 음악교육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음악교육공학**. 12, 205-220.
- 홍승연 (2015).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음악프로그램 참여 강사의 인식조사, **음악교육공학**. 25. 1-17.

ABSTRACT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 of Music Educational Psychology

Hyun, Kyungsil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research papers related to music educational psychology published in Korean music education related journals, and to help activate a deeper and systematic research related to music educational psychology.

This study has surveyed 1,117 papers published in the five journals from 2010 to 2016 that are registered in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138 papers about music educational psychology a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apers related to music psychology are increasing, but still 12.4% of all the papers. Second, in terms of research methods, experimental studies are 22.9%, survey studies are the most frequent, 61.6%. Third, the papers are mostly about students including infants and children, reaching 43.5%.

Fourth, in terms of research instruments, over 40% of studies are using questionnaire.

Key words: directions of music education research, music educational psychology, music psychological tests, music aptitude, creativity, human nature.

투고일: 2017년 11월 30일, 심사(수정): 2018년 1월 16일(1월 21일), 게재확정일: 2월 14일